2009365054

저자의 말 글씨에서 항일운동가의 숨결을 느끼다
추천의 글 사람의 성정과 기질을 글씨에서 찾는 필적 수사관

1 장 글씨가 내게 말을 걸다
사람과 필적
나는 왜 글씨에 빠졌나
항일운동가와 친일파 글씨의 재발견

2 장 필적은 말한다
필적은 뇌의 흔적
필적은 말한다
글씨를 보면 성격이 보인다
항일과 친일, 글씨부터 다르다

3 장 글씨로 본 항일과 친일
김구 대 이완용
여운형 대 여운홍
이승만 대 박영효
손병희 대 최린
이준 대 조중응
이시영 대 윤덕영

4 장 자결로 항거한 항일지사의 글씨
의로운 죽음, 통한의 죽음
유서 남기고 자결한 조병세
통절한 절명시에 담은 의혼, 황현
의로운 비분강개, 이성렬
숙유의 한이 목숨을 가르다, 이만도
망국을 탄식한 강개지사, 정재건
음독 자결한 형조판서 김석진
이름 없이 사라져간 선비들

5 장 친일파와 일본 침략자들의 글씨
지금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인직의 글씨
친일파 서첩
일본 간부를 초대한 친일 권력들의 편지
‘이준 열사의 가족을 염탐하라’는 권중현의 간찰
정한론 주창한 사이고 다카모리
한국 병합의 기초 마련한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

6 장 인간을 닮은 글씨, 글씨에 담긴 인생
눈물겨운 삶의 기록들
면암 최익현의 거의록
의병장 유인석의 눈물 편지
의병의 마지막 편지, 서상렬의 절규
의병장 양한규의 쌀 한 섬 빌려달라는 편지
의거를 앞두고 가족을 부탁하는 김지섭의 편지
일제 침략을 규탄한 곽종석의 포고문
의병장 권세연의 창의문
의병 정경태의 창의통문
만주 투사 이종혁의 옥중 편지
헤이그 특사사건의 주역, 이상설의 편지
대한인국민회 이대위의 선서문
이능화의 조선사 집필 자료들

7 장 글씨가 바로잡아준 역사의 진실
묻혀 있는역사를 찾아서
의열단 제 2 차 대암살 파괴계획의 밀고자는 황옥이 아니다
운허는 일본군과의 전투 중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항일투사 '김혁'의 이름은 1912 년 이전에도 사용했다
김학규 장군의 본관은 의성이 아닌 안동이다
[삼일운동비사]의 최초 제목은 [삼일운동비사실기]였다

8 장 글씨에도 명품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주옥같은 글씨들
오세창의 '삼한일편토'와 '부고재진상'
최남선의 인생을 후회하는 시
조선백자 같은 허위의 간찰
홍만식의 매화도
병풍 뒤에서 나온 홍기조의 간찰
박헌영의 암호 편지
서예 작품보다 멋진 이범석의 간찰

9 장 진흙 속에서 진주 찾기
글씨와 함께한 희로애락
쓰레기통으로 갈 뻔한 진품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고민고민하다가 놓친 물건들
우여곡절로 인연 맺은 안희제, 나철

조병옥의 술 모임
윤세복이 쓴 신채호의 [이순신전] 필사본

10 장 글씨 수집에서 나는 인생을 배웠다
진품 구별법: 진짜와 가짜 사이
컬렉션 십계명: 나의 수집 원칙

부록
1. 성공하는 사람은 글씨체가 다르다
2. 역대 대통령의 글씨 분석